

# ‘분노의 포도’ FTA 잔혹사

## 칠레산 저가 공세에 국산 재배면적·생산량 반토막 올해부터 페루산 무관세 전환·호주산도 유입 ‘한숨’

칠레산을 필두로 수입포도 공세에 국산 포도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올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혜택을 본 호주산 포도가 본격 수입되는 등 외국산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미 생산량과 소비량이 반토막 난 국산 포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총 5만 9000t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수입량(8300t)의 7배를 넘는 것이다. 칠레산은 국내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입량의 12%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산 포도는 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고 있으며, 2011년 FTA가 발효된 페루산 포도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면서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포도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산 포도 생산과 소비는 계속 줄고 있다.

2000년 2만9000ha에 달했던 국산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 1만6000ha로 감소했고, 생산량은 2000년 47만6000t에서 2013년 26만t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10.3kg에서 6.3kg으로 크게 줄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칠레산 포도. 100g당 690원에 판매됐다.

이처럼 국산 포도 생산이 감소했음에도 2010~2014년 국산 포도의 6~7월 실질가격은 하락했다. 이는 이 시기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포도 출하가 늘고 체리·바나나·망고 등 소비 대체 과일의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의 국산 포도와 수입 포도 매출 구성비를 보면 2010년에는 국산이 62.7%로 수입 포도(37.3%)를 앞섰지만, 2011년 50.1%, 2012년 49.8%, 2013년 45.6%, 2014년 44.7% 등으로 해마다 비중이 줄고 있다.

국산을 위협하고 있는 수입 포도의 공세는 올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작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기 시작한 칠레산 포도의 작황이 작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페루산 계절 관세율이 9%에서 무관세(1~4월, 11~12월)로 전환되고, 미국산 포도 계절 관세율(1~4월, 10~12월)도 작년 12%에서 올해 6%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관세 인하 혜택을 활용해 올해 수입 포도 도입량을 작년보다 50~200% 늘리면서 가격도 낮추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4일부터 칠레산 청포도를 작년보다 10% 저렴한 100g당 6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칠레 산지와 직접 계약을 해 4월 말까지 5000t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칠레(1~7월), 미국(8~12월), 페루(12~2월)로부터 수입한 포도를 연중 판매하고 있다. 올해에는 호주산 포도를 추가로 들여와 수입포도 물량을 작년보다 50%가량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칠레산 포도 도입 물량을 작년보다 200%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해 수입을 시작했지만 판매가 많지 않았던 호주산도 4월 이후 물량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와 농협 농산물 수출 관계자들이 ‘2015 전남 농식품 수출 발대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전남 농식품을 수출 5000만달러 달성 결의

### 농협 전남본부 수출 발대식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올해 50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본부 강당에서 전남도,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경제부, NH무역 등 60여명의 수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전남 농식품 수출 발대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남도의 수출진흥책, 농협중앙회의 수출활성화 지원제도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수 수출농협인 나주배원농협과 두원농협의 배와 유자차 수출 사례도 전파하는 등 수출 확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도내 유관기관 연합수출조직을 육성하고 수출 신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두 배인 5000만 달러를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도 단위 연합수출조직을 육성하고, 수출 신상품을 개발

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aT와 연계한 연합수출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산지유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 농협지역본부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팀을 신설하고 2명의 수출전담인력을 배치했다”며 “수급불안식품 및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aT,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매달 제공 작년 6213억원 관세 수입 증대 효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해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수입 가능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63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aT가 관세청에 농산물 수입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농산물 품목과 규격이 다양하고 정확한 수입가격 추정이 어려워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고추, 마늘, 콩 등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고시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aT는 지난해 저가 수입신고 방지를 통한 관세 수입증대 효과가 6213억원, 수입 농산물 적정 가격 유통을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가 139억원 등 6352억원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가신고와 관행이 많았던 냉동고추는 심사강화로 수입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부터는 신선 냉장마늘과 쌀이 사전세액심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면서 적용품목이 더욱 늘어났다.

aT 관계자는 “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는 좋은 협업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26종 귀농귀촌종합센터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위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26종을 만들어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촌지역에서 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 활용가이드, 조감도, 시방서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전국의 읍·면·동 자치센터 등 3천여 곳에 설계도 관련 안내서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사 등을 통해서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선우 지역개발과장은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설계도 작성 비용을 줄일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만큼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국제협정 눈치보는 정부 수입쌀 국산 둔갑 막지마라?

### 농식품부·소분업체 반대 쌀 재포장 금지 법안 표류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유통을 차단할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쌀 재포장 금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각각 국제협정 위배 소지와 생존권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수입쌀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쌀 재포장 금지법안은 빨라야 4월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반대도 강경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앞둔 지난해 7월 윤영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현재 발효 중인 수입쌀은 현지에서 흰쌀로 도정된 뒤 10kg과 20kg들이 종이포대에 담겨 국내로 들어온다. 신선도나 비용을 따져봤을 때 굳이 재포장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도매가격이 국내산의 60~70% 수준인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팔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국산 쌀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정부가 ‘수입쌀만 차별하면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며 추가 검토를 요구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윤 의원은 재포장 대상에 국내산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재포장이 금지되면 혼쌀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국내산 쌀시장 역시 저가쌀이 ‘이전쌀’처럼 고가쌀로 둔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쌀과 국내산 쌀에



동일하게 재포장을 금지하더라도 수입 쌀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소위에 ‘수입쌀은 국내산에 견줘 운반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포장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재포장 필요성이 크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양곡을 소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체들도 농식품부에 재포장 금지 법안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파악한 양곡 소분업체는 880곳. 이 중 730곳은 국내산만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국회와 농업계는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쌀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 수출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 의원은 “우리가 쌀 수출국의 포장지 훼손까지 걱정해야 하나”며 “기존 포장지를 보관하는 조건으로 소포장을 허용하지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이치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b>CHANNEL A</b></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b>16</b></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b>13</b></p> <p>IPTV <b>18</b></p>	<p>꿈을 담은 캔버스 <b>채널A</b></p> <p>www.ichannelA.com</p>
---	--	--	---	--